

“침체된 후반기 흐름 끊자”...KIA, 코치진 일부 개편

10개 구단 중 후반기 승률 최하위...투·포 재정비 시동 퓨처스 코치진 1군 합류...단기 처방 아닌 체계 개편 신호 남은 시즌 경기 후반 리드 지키는 힘 되찾아야 반등 가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침체된 후반기 흐름을 끊기 위해 코칭스태프 보직을 일부 개편했다.

KIA는 지난 11일 이동걸 불펜 코치를 1군 투수 메인 코치로, 이정호 퓨처스 투수 코치를 1군 불펜 코치로, 이해창 퓨처스 배터리 코치를 1군 배터리 코치로 선임했다. 기존 1군 코치 일부는 퓨처스팀으로 자리를 옮겨 유망주 육성에 힘을 보탠다.

특히 투수 코치진 변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구단은 이를 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적 부진이 길어지고 마운드 운영 난조가 이어진 만큼 변화의 필요성은 분명했다. 후반기 시작 당시 4위였던 KIA는 11일 기준 6

위로 내려앉았다. 16경기에서 5승10패1무(승률 0.333)로 10개 구단 중 최하위 승률에 머물렀고, 최근 10경기에서도 4승1무5패에 그쳐 반등의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부진의 핵심 원인은 뒤편 붕괴였다. 후반기 불펜 ERA는 6.00으로 리그 9위, 피안타율은 0.296, WHIP는 1.52다. 피홈런 10개를 허용했고, 상대 OPS는 0.829로 사실상 '중심타선 수준'의 타격 생산을 내줬다. 상위팀 SSG(불펜 ERA 2.46)와 롯데(2.48)가 안정적인 뒤편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사실 불펜 불안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졌다. 전반기에도 리드를 지키지 못해 승리를 놓친 경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개편을 두고 “너무 늦은 조치 아니냐, 진즉 교체했어야 했다”



지난 1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KIA 이범호 감독과 코치진이 3회초 수비를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1군에 합류한 코치들이 지도했던 퓨처스팀에는 젊고 잠재력 있는 투수 자원이 많다. 이런 점에서 이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퓨처스 투수진 역시 ERA 7점대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개편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KIA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불펜 운용과 투·포 간 소통 방식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의 안정감과 자신감 회복이 중요한 과

제로 꼽힌다. 경기 후반 리드를 지키는 능력이 향후 순위 경쟁에 중요한 변수다. 후반기 승률 최하위라는 뼈아픈 현실 속에서, KIA가 이번 변화를 반등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홍철기자



살리고 살리고 ~ 12일 부산 광안리 해변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국내 고교 및 대학 8개 팀이 참가하는 '한국 비치발리볼 시즌 1'에서 남부대와 목포과학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이곳에서 '2025 부산 광안리 국제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국제배구연맹(FIVB)이 공인해 국제 순위 점수가 부여되는 프로투어 퓨처스 시리즈로 브라질과 미국 등 총 12개국에서 세계 정상급의 28개 팀이 참가한다. /연합뉴스

우상혁, 다이아몬드리그 거르고 세계선수권 집중

중아리 통증 느껴 오늘 조기 귀국 한 달 앞둔 도쿄대회서 우승 도전

올 시즌 무패 가도를 달리는 '스마일 접미' 우상혁(29·용인시청·사진)이 대회 출전을 잠시 멈추고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위해 훈련에 집중한다.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출전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던 우상혁은 예정보다 빠른 13일에 귀국한다.

우상혁은 지난 10일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하일브론에서 열린 하일브론 국제 높이뛰기 대회에 불참했다.

'선수 소개' 때는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나왔지만, 실제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대한육상연맹 관계자는 12일 "경기 워밍업 중에 우상혁이 종아리 쪽에 불편함을 느꼈다. 부상 방지 차원에서 하일브론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다"며 "지금은 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이아몬드리그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상혁은 16일 폴란드 실레지아 다이아몬드리그 개별 경기, 20일 스위스 취리히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 결장한다.

우상혁은 현재까지 4차례 열린 다이아몬드리



그 개별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 중 2개만 출전하고도 모두 우승해 다이아몬드 랭킹 포인트 3위를 달린다.

그는 랭킹 포인트 상위 6명이 경쟁하는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 출전이 유력했지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에 집중하고자 이를 포기했다.

도쿄 세계선수권은 9월13일에 개막한다. 남자 높이뛰기 예선은 9월14일, 결선은 9월16일에 열린다.

2022년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대회에

서 우상혁은 2m35를 넘어, 역대 한국 육상 최초로 실외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따냈다.

올해 도쿄에서는 한국 육상 최초의 실외 세계선수권 우승을 노린다.

도쿄로 향하는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다. 우상혁은 올 시즌 출전한 7개의 국제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실내 시즌 3개 대회(2월9일 체코 실내대회 2m31, 2월19일 슬로바키아 실내대회 2m28, 3월21일 중국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2m31)에서 정상에 오르더니, 실외 시즌에서도 4개 대회(5월10일 왓 그래비티 켈리지 2m29, 5월29일 구미 아시아선수권 2m29, 6월7일 로마 다이아몬드리그 2m32, 7월12일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m34)에서 1위를 차지했다.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도쿄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2m33)을 통과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상혁은 "난징 세계실내선수권, 구미 아시아선수권, 도쿄 세계선수권 우승이 올해 목표"라고 밝혔다.

7월15일부터 월드 랭킹 1위에 오른 우상혁은 '우승 후보'로 도쿄에 입성할 수 있다.

관건은 몸 상태다.

통증이 심하지 않지만, 우상혁은 최상의 몸 상태로 세계선수권을 치르고자 귀국 후 병원 검진 등을 거쳐 세부 훈련 계획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10월10일 삼바 군단과 붙는다

내년 월드컵 대비 서울서 맞대결할 듯 대한축구협회 "브라질협회와 조건 협상"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는 10월 서울에서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10월10일 서울에서 브라질과의 국가대표팀 간 친선경기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브라질축구협회(CBF)와 구체적인 조건 등을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브라질 유력 매체 글로부도 11일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오는 10월10일 서울에서 한국,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브라질축구협회는 이미 한국 및 일본축구협회와 10월 친선경기 개최에 합의했으며 양측은 공식 발표 전에 상업적 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ESPN 브라질 인터넷판이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브라질 대표팀이 아시아 원정 2연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이미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방한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월14일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치르는 것은 확

정된 상태다. 브라질 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그해 6월 한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해 평가전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 경기에서 네이마르(산투스)에게 두 골을 내주고 1-5로 대패했다.

브라질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일본을 1-0으로 눌렀다.

브라질의 방한이 성사되면 3년 4개월 만이다. 브라질은 그간 6차례 방한해 태극전사들과 평가전을 치렀다.

한국은 역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8차례 맞대결에서 1승 7패를 기록 중이다. 1999년 3월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김도훈의 결승 골로 1-0으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마지막 대결인 2022년 12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1-4로 졌다.

FIFA 랭킹은 한국이 23위, 브라질이 5위다.

브라질 대표팀이 방한하면 1992년생 동갑내기 손흥민(LAFC)과 네이마르의 재대결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 대표팀은 9월 A매치 기간에는 미국 원정길에 올라 내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후, 다루빗슈 상대 내야 안타...8월 타율 0.342

김하성은 5타수 무안타 침묵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다시 안타 행진을 벌였다.

이정후는 1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2025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홈 경기에서 6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일본 출신 선발 투수 다루빗슈 유를 상대로 내야 안타를 뽑아내는 등 3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11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끊겼던 이정후는 다시 안타를 생산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는 8월 이후 10경기에서 타율 0.342(38타수 13안타)를 찍었다. 시즌 타율은 0.256을 유지했다. 안타는 0-0으로 맞선 2회말 공격 때 나왔다.

1사 1루에서 다루빗슈를 만난 이정후는 초구와 2구에 모두 배트를 휘둘렀으나 파울 2개를 치면서 볼카운트 2스트라이크에 몰렸다.

3구째 바깥쪽 138.9km 슬라이더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그러나 빗맞은 타구는 느리게 3루 방면으로 흘렀고, 이정후는 빠르게 내달려 1루에 안착했다.

이정후의 내야 안타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후속 타선이 터지지 않아 득점엔 실패했다.

이정후는 나머지 타석에서 침묵했다. 0-0으로 맞선 5회초 선두 타자로 나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1-4로 뒤진 7회말 공격도 아쉬웠다. 1사 1루에서 바뀐 우완 투수 제리마리아 에스트라다를 상대로 풀카운트 승부 끝에 2루 땅볼을 쳤다.

샌프란시스코는 1-4로 패해 3연패에 빠졌다.

다루빗슈는 이날 슬러로 시즌 2승째(3패)를 거둬 MLB 통산 승수를 112승으로 늘렸다.

박찬호가 남긴 아시아 출신 투수 최다승(124승)에 12승 차이로 다가섰다.

템파베이 레이스 김하성은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서터 헬스 파크에서 열린 애슬레틱스와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18에서 0.200(60타수 12안타)으로 떨어졌다.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제외한 선발 타자 전원 이안타를 기록하는 맹공을 펼치며 애슬레틱스에 7-4로 승리했다. /연합뉴스